

페퍼스, 첫 승 후 3연패...새 외국인 테일러 '승리 견인' 기대



GS칼텍스에 1-3 역전패...테일러, 블로킹 등 강점

‘외국인 용병’ 자비치가 빠진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3연패에 빠졌다. 페퍼스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테일러 프리카노가 보여줄 경기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페퍼스는 지난 1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1라운드 4번째 경기에서 GS칼텍스에 세트스코어 1-3(25-16 24-26 20-25 23-25)패를 당했다.

지난달 29일 흥국생명에게 세트스코어 1-3으로 승기를 뺏긴 페퍼스는 개막전 첫 승 이후 3연패를 기록하면서 1승 3패(승점4)로 5위에 자리했다.

페퍼스는 첫 세트를 먼저 가져오는 데 성공했지만 내리 3세트를 내주며 GS의 이번 시즌 첫 승 제물이 됐다.

페퍼스가 분위기를 이끌었던 1세트에서는 팀 공격 득점 16점으로 64%의 공격 성공률을 보였고, 유효 블로킹 5개를 기록하며 7포인트 차로 앞서 나갔다.

듀스 점진 끝에 2세트를 내준 페퍼스는 지난 경기 연속 셋아웃 패배를 기록한 GS에 2024-2025 시즌 첫 세트승을 선사했다.

1세트의 기세가 사그라들면서 페퍼스가 주축하는 사이 GS는 실바와 외원리 쌍포를 앞세워 리드를 놓치지 않고 3-4세트까지 가져갔다.

주장 박정아가 팀 최다 21득점(공격 성공률 35.19%)을 따냈고 각각 12득점(40%), 11득점(40.74%)을 올린 이한비와 박은서가 연속 득점을 이끌어내며 힘을 보탤까봐 혼자서만 32득점(47.62%)을 만든 GS실바의 화력을 막지 못했다.

또 ‘범실 제로’의 이예람이 72.73%의 공격 성공률과 세트당 33.33%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하면서 공·수 양면으로 분투했으나 팀 전체적으로 리시브가 흔들려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였다.

장소연 페퍼스 감독은 “서비스공력이 잘 안되기 때문에 외국인 한 명이 있다보니 화력 싸움에서 밀렸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지난 1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1라운드 경기에서 GS칼텍스에 세트스코어 1-3으로 패했다. 박정아가 착잡한 표정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KOVO 제공)

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선수가 없는 싸움에서 힘을 얻던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페퍼스는 지난달 29일 여객 부상 등의 이유로 바

르바라 자비치를 교체하고 대체 외국인 선수로 테일러 프리카노를 영입했다.

자비치가 빠진 채 흥국생명전을 치른 페퍼스는

박정아 19점, 이한비 16점, 장위-박은서 13점 등 두 자릿 수 득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뒷심 부족으로 역전패를 당했다.

신장 190cm의 테일러는 아포짓 스파이커지만 미들블로커 포지션도 소화했던 만큼 공·수 일정 부분을 책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선수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경기 후반부 뒷심이 부족해 외국인 용병의 부재가 아쉬운 상황, 테일러의 활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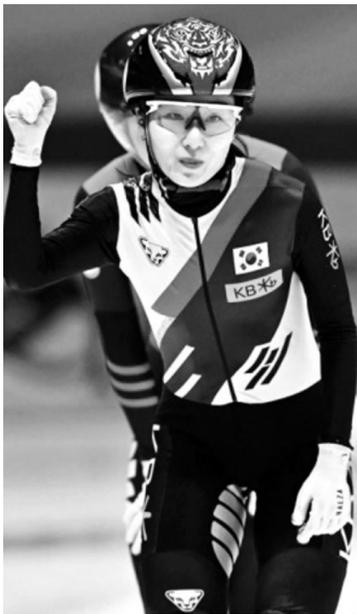
장 감독은 “(테일러는) 같이 훈련도 시작했고 파이팅 넘치는 성격이라 선수 스스로도 빨리 경기를 뛰고 싶어 한다. 밝은 에너지와 블로킹 능력 등 선수가 가진 장점들이 팀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테일러에 대해 언급했다.

페퍼스 관계자는 “아직 비자 발급이 완료되지 않아 투입 시기는 미정이다. 다가오는 경기에서 바로 뭘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페퍼스는 오는 5일 오후 7시 수원체육관에서 현대건설을 만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돌아온 ‘쇼트트랙 여왕’...최민정, 우승 사냥 시작



2차 월드컵 여자 1000m 우승

‘쇼트트랙 여왕’ 최민정(성남시청·사진)이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 여자 1000m에서 복귀 후 처음으로 우승했다.

최민정은 3일(한국시간)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을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30초496의 기록으로 산드라 펠레부르(1분30초632-네덜란드), 커린 스토터드(1분30초779-미국)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레이스 초반 선두를 유지하던 최민정은 결승선을 3바퀴 남기고 펠레부르에게 선두를 내줬다.

그러나 최민정은 결승선 2바퀴를 남기고 두 번째 직선주로서 인코스를 비집고 들어가 펠레부르를 제치는 데 성공했다.

이후 폭발적인 스피드로 속도를 끌어올린 뒤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펼치던 최민정은 장비 교체와 개인 훈련, 휴식을 위해 2023-2024시즌 태극마크를 반납했다가 올 시즌 대표팀에 복귀했다.

그는 월드컵 1차 대회 여자 15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고 두 번째 국

제대회에서 세계 정상에 복귀했다.

이날 ISU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민정의 우승 소식을 알리며 ‘여왕이 돌아왔다’고 소개했다.

최민정은 소속사인 울렛스포츠를 통해 “시즌 첫 금메달을 받아 굉장히 기쁘다”라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디펜딩 챔피언 김길리(성남시청)는 1분31초069의 기록으로 5위에 그쳤다.

같은 날 열린 남자 1500m 결승에선 지난 시즌 챔피언 박지원(서울시청)이 2분17초653으로 4위를 기록해 어렵게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

남자 500m에선 한국 선수 전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박지원, 김태성(서울시청), 장성우(고려대), 박장혁(스포츠투트)은 남자 5000m 계주 준결승 1조에서 캐나다에 이어 2위에 올라 4일 결승전을 치른다. 최민정, 김길리, 김건희(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가 출전한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선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끊었지만, 페널티 판정이 나와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경기 중 노도희가 왼손으로 중국 선수를 막았다는 판정이었다.

/연합뉴스



‘파리 3관왕’ 김우진, 국가대표 2차 선발전 1위

여자부 1위 신예 염혜정...광주시청 김수린 3위·광주은행 안산 8위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양궁 3관왕 김우진(경주시청·사진)이 2025년도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1위로 통과했다.

김우진은 2일 충북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끝난 2025년도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배점 합계 94로 1위를 차지했다.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 3개를 모두 휩쓸었고 지난해 월드컵 파이널에서 우승한 김우진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절정의 슈팅 감각을 이어갔다.

파리 올림픽에 함께 출전한 김제덕(예천군청)과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은 각각 2위, 5위로 2차 선발전을 통과해 남녀 각 20위까지 주는 3차 선발전 출전권을 여유롭게 따냈다.

이우석의 소속팀 후배 김선우가 3위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올해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들이 대거 순위표 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20세 신예 염혜정(경희대)이 배점 합계 90점으로

1위를 달렸다.

9년 연속 국가대표로 활동하다 올해 태극마크를 놓쳐 파리에 가지 못한 강채영(현대모비스)은 2위에, 2022년 한 차례 태극마크를 달았던 김수린(광주시청)은 3위에 올랐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중에서는 남수현(순천시청)이 가장 높은 5위를 기록했고, 전훈영(인천시청)은 7위였다.

파리에서 3관왕에 오른 임시현(한국체대)은 11위에 그쳐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 금메달 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게 했다.

2020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은행)은 8위다.

내년 3월에 열리는 3차 선발전을 통과하는 남녀 각 8명은 2025년 국가대표가 돼 동계 강화 훈련에 참가한다.내년도 국가대표 중 평가전까지 통과한 남녀 각 3명의 선수는 9월 열리는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마다솜, KLPGA 에쓰오일 챔피언십 우승

마다솜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에쓰오일 챔피언십(총상금 9억원) 정상에 올랐다.

마다솜은 3일 제주도 제주시 엘리시안 제주(파72-675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만 5개를 치고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01타의 성적을 낸 마다솜은 김수지와 함께 연장에 들어갔고, 18번 홀(파5)에서 진행된 2차 연장에서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김수지를 따돌렸다.

9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마다솜은 시즌 2승, 투어 통산 3승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1억6200만원이다.

마다솜은 지난해 9월 OK금융그룹 아웃오픈에서 첫 승을 따냈고 올해도 9월과 11월에 승수를 보태며 김수지 못지않은 ‘가을 여왕’의 길을 걸었다.

이날 마다솜의 연장 상대였던 김수지는 통산 6

승을 모두 절기상 가을에 올려 ‘가을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는 선수다. 올해도 10월 하이진트로 챔피언십을 제패했다.

1차 연장을 파로 비긴 두 선수는 2차 연장에서 퍼트 대결을 벌였고, 결국 마다솜이 웃었다.

김수지가 먼저 약 5m 버디 퍼트를 시도했지만, 왼쪽으로 빗나갔고, 마다솜은 2.5m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문정민과 한진서, 흥현지가 나란히 14언더파 202타를 치고 공동 3위에 올랐다.

상금과 대상 포인트 2위 박현정은 10언더파 206타, 공동 9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에 불참한 상금과 대상 포인트 1위 윤이나를 추월하지는 못했지만, 간격을 좁히며 시즌 최종전 역전 가능성을 키웠다. 이 대회는 원래 4라운드 경기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대회 기간 약천후로 인해 3라운드 축소됐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 **역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명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역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11.1(금) - 12.1(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